

'선진 출산·육아·교육·농업·관광 정책 벤치마킹' 일본 공무원외출장 결과보고

요 약

- 일 시: 2024. 10. 28.(월) ~ 11. 1.(금)
- 장 소: 일본
- 참석인원: 14명
 - 고성군의회 의장 포함 의원 9명
 - 의회사무과장 포함 수행공무원 5명
- 내 용: 출산·육아·교육지원 시책 및 농업·관광자원 벤치마킹, 비교시찰



고 성 군 의 회

목 차

I. 출장목적	-----	1
II. 출장개요	-----	1
III. 출장일정	-----	4
IV. 주요 방문 활동		
• 히메이지 성	-----	5
• 구라시키 미관지구	-----	8
• 나기초군(읍)청	-----	10
• 코라쿠엔	-----	16
• 카케가와시청	-----	18
• JA동경 아구리파크 6차산업 농산물 직판장	-----	24
V. 연수 총평	-----	26
VI. 연수 소감문		
• 이쌍자 의원	-----	28

‘선진 출산·육아·교육·농업·관광 정책 벤치마킹’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I 출장목적

- 우수 출산·육아·교육 시책 및 농업·관광정책을 벤치마킹하고 도시 재생 사업현장 등을 방문, 현장확인 통해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모색하여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주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II 출장개요

- 기간: 2024. 10. 28.(월) ~ 11. 1.(목), 4박 5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방문도시		방문기관 및 현장시찰	방문목적
일 본	히메이지	① 히메이지 성	세계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례
	오카야마	② 구라시키 미관지구, 코라쿠엔	도시재생 및 관광자원화 사례
	나기초	③ 나기초군(읍)청	주요 출산·육아·교육정책 성공사례
	아타미	⑤ 카케카와시청	고품질 농산물 및 지역특산물 생산 성공사례 및 평생학습 성공사례
	하코네	⑥ JA동경 아구리파크 6차산업 농산물 직판장	농업정책 성공사례

○ 출장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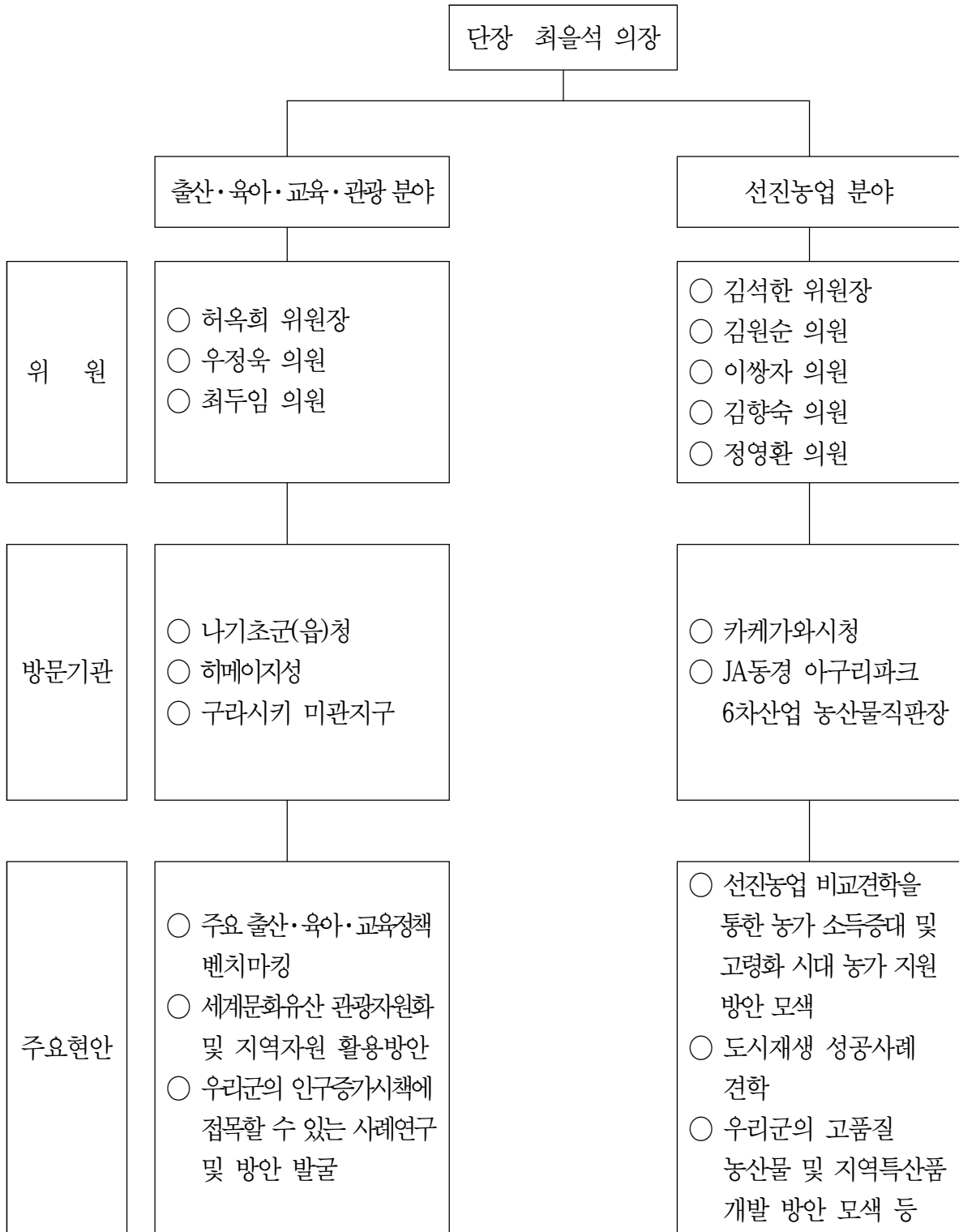
- 고성군의회 의원 9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고성군의회	의장	최을석	
2	고성군의회	부의장	우정욱	
3	고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최두임	
4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허옥희	
5	고성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6	고성군의회	의원	이쌍자	
7	고성군의회	의원	김향숙	
8	고성군의회	의원	정영환	
9	고성군의회	의원	김원순	

- 공무원(5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근	
2	의회사무과	주무관	김규남	
3	의회사무과	주무관	이행선	
4	의회사무과	주무관	박민지	
5	의회사무과	주무관	윤재숙	

○ 출장자 임무부여



○ 수행 공무원: 국외출장지 의정활동 지원 등

Ⅲ 출장일정

일자	지역	교통	주요일정 및 업무 수행 내용
제1일 10.28(월)	김해 일본	BX124 08:30	■ 이동 (김해공항 → 일본 오사카 공항)
제1일 10.28(월)	일본 히메이지	차량	■ 히메이지 성 -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자원화 사례
제1일 10.28(월)	일본 구라시키 미관지구	차량	■ 구라시키 미관지구 - 도시재생 및 관광자원화 사례
제2일 10.29(화)	일본 오카야마	차량	■ 코라쿠엔 - 공원 관광자원화 사례
제2일 10.29(화)	일본 오카야마	차량	■ 나기초군(읍)청 - 주요 출산·육아·교육정책 성공사례
제3일 10.30(수)	일본 아타미	차량	■ 카케가와시청 - 평생학습 성공사례 및 고품질 농산물 지역특산물 생산 성공사례 등
제4일 10.31(목)	일본 하네코	차량	■ JA 동경 아구리파크 6차산업 농산물 직판장 - 고품질 농산물 및 지역특산물 판매 성공사례
제5일 11.1(금)	일본 김해	BX111 11:25	■ 이동(일본 나리타공항 → 김해공항)

IV 주요 기관방문 활동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 명: 일본국(日本國, JAPAN)▶ 수 도: 도쿄(東京·Tokyo)▶ 인 구: 약 1억 2,568만 명(2021, World Bank)▶ 면 적: 약 38만km²(한반도의 약 1.7배 / 고성군의 약 735배)▶ 민족구성: 일본족(Japanese)▶ 언 어: 일본어(Japanese)▶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

10. 28.(월)

1. 히메이지 성

- 일본의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1993년 등록)
- 현존하는 천수각을 가진 12곳의 성 가운데 한 곳으로, 에도시대 이전에 건조된 천수를 가진 성곽 중 하나임. 일본에서 가장 잘 보존된 성으로 일컬어짐.
- 다른 성들과 비교해서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 특징.
- 히메이지성(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주차장 시설 등이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으며, 출입로를 비롯한 보행자 도로 또한 잘 보존·정비되어 있음.
-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명소만큼 다양한 언어의 안내도와 책자 등을 제공하고 있음.

√군정 발전과 접목할 부분 제안

○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 자원화의 조화로운 추진

- 일본 히메지성은 일본 내에서도 보존이 잘된 성으로 통하는데, 관광 자원화를 위한 무리한 개발 보다는 자연문화유산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등을 확충해 놓은 점 등이 특징적임. 우리 군에서도 송학동고분군과 같은 문화유산 관람 등을 위해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보존하며, 관광 자원화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접근 및 시책 추진 필요.

○ 세계문화유산 안내도 정비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 히메지성 안내를 위해 일본어를 비롯한 영어, 한국어 등등 각국 방문객들을 위한 안내도, 안내책자, QR코드 등을 제공하고 있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군의 송학동고분군 정보 제공을 위해 QR코드로 연결되는 다양한 언어의 안내 정보 등을 방문지 곳곳에 배치하고 안내하는 형태 필요.

○ 세계문화유산(송학동고분로) 진출입로 정비 및 교통 시설(주차장) 확충

- 고성군 고성읍 시가지에 위치한 송학동고분군은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는 구조임.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진출입로 및 기존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히메이지성처럼 기존 문화유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형태로의 접근 필요.



히메이지성 앞 횡단보도



히메이지성 부근 주차장



히메이지성 안내도



히메이지성 출입로



히메이지성 입구



히메이지성 방문 사진

2. 구라시키 미관지구

- 일본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에 있는 관광 지구.
- 구라시키 미관지구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무려 66년에 걸쳐 성공을 거둔 사례.
- 1949년 ‘구라시키 도시 아름다움 협회’ 결성 이후, 흰벽 보존 운동을 통해 1968년 구라시키시 전통미관보존조례, 1978년 구라시키 전통적 보존지구 보존조례를 제정함.
- 1990년 전통건물 보존지구 배경 보존조례 제정 이후 건물주조차 미관지구의 전통적 배경을 해치는 건축행위는 할 수 없게 됨.
- 구라시키 시청은 이 조례를 기반으로 1979년부터 전통가옥, 건물, 창고, 도로 등을 보수했고, 1986년부터 전선 지중화 사업 시행.
- 이와 같은 꾸준한 노력들로 인해 인구 약 46만 명의 구라시키시는 연간 관광객이 500만 명에 달하는 도시로 거듭남.

√군정 발전과 접목할 부분 제안

- 전통을 보존하며, 현대와 조화롭게 추진하는 고성군만의 도시재생사업
 - 우리 군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성 송학동고분군’을 비롯해 소가야의 역사를 품은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으며, 공통과 연관된 많은 문화 콘텐츠와 가리비와 같은 지역 특산품 등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음.
 -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오랜 역사(전통)와 문화를 간직한 우리 군의 특색을 살려, 현대적 감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담당 공무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일관된 방향성 유지 필요.
 - 단기적인 성과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통과 문화를 지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관광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언어의 관광정보 제공

- 연간 50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방문하는 곳인만큼, 다양한 언어의 정보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음. 우리 군도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 관광 홈페이지와 연계한 주요 명소 관련 정보 및 다양한 버전의 지도, 안내책자 등의 제공이 필요해 보임.



<구라시킴관지구 한글 지도>



구라시킴관지구 안내도



구라시킴관지구 내 거리



구라시킴관지구 내 건물(흰 벽)



구라시킴관지구 내 상가



구라시킴관지구 내 거리



구라시킴관지구 방문 사진

10. 29.(화)

1. 나기초

< 방문 개요 >

- ▶ 일 시: 2024. 10. 29.(화) 13:00 ~
- ▶ 장 소: 나기초 군청
- ▶ 참 석
 - 고성군의회: 방문단 14명(군의원 9, 수행직원 5)
 - 나 기 초: 나기초 정보기획과 小坂(코사카) 외 직원 등
- ▶ 진행순서: 인사, 기관소개 및 현황 청취, 질의답변, 기념품 전달 등

■ 나기초 군 현황

- 인 구: 5,575명
 - 면 적: 69.52km²
 - 위 치: 오카야마 북동부 카트다 군에 속해 있는 마을
 - 주요산업: 임업, 농업(와사비농업), 제조업
 - 육아하기 쉬운 마을 만들기과 이주자 유치에 힘을 실어 함께 특수 출생율은 전국 최고 수준임(출산율 2.95명)
 - 독자적인 육아 교육 시책 추진
- 1955년 2월, 세 마을의 합병으로 나기초 형성. 도심 반경 2km²에 인구의 80%가 정착해 있음.
 - 2022년 12월, 합병 의사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합병하지 않고 마을 단독 체제인 단독 정제를 결정함.
 - 나기초 내 육아시설로 보육원 1개, 유치원 2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육아지원시설(차일드홈)이 있음.
 -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키우는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과제를 주민과 함께 토론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함 (아이부터 젊은이, 고령자까지 살기 좋은 마을을 다 같이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
 - 아이·육아 정책의 강화에는 시책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 전체의 의식을 바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나기초 군만의 특색있는 육아지원 대책

① 끊임 없는 경제적 지원

- 보육료가 국가 기준의 반값, 둘째 아이는 그의 반값, 셋째 아이 이후에는 무료
- 초등학교·중학교 급식비의 반값을 마을에서 부담
- 초등학교·중학교 교육의 교재비 무상화
- 고등학생까지 의료비 무료
- 대학생 대상 마을 독자적 장학 육영금(학자금) 제도, 졸업 후 마을에 정착하면 상환 전액 면제
- 특정 불임 치료를 받은 자에게 현의 지원을 뺀 금액의 1/2 이내에서 연 20만엔 지원
- 재택육아를 하는 보호자에게 매월 15,000엔의 지원금 지급
- 고등학교 대상 취학지원으로 년 240,000엔 지원금 지급
(나기초 내에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한달에 약 20만원 정도 교통비도 지급)
- 중학교 3학년 까지의 아이를 기르는 한부모 가정에 년 5만 4천엔 지급, 둘째 아이 이후에는 1인당 2만 7천엔 가산 지급

② 정서적 지원(산전산후 케어)

- 육아상담일 운영
 - ※ 임산부, 어머니, 아버지 등 육아에 관계되는 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보건상담센터에서 실시
- 보건사에 의한 모자수첩 교부 시 면담, 메일로 육아 관련 정보 전송
- 보건사가 모든 신생아 가정 방문(모유 상담, 산후 헬퍼 등)
- *Nagi child Home* 운영
 - 아이를 키우는 세대가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시설로 개방
 - 상주하는 육아어드바이저에게 육아에 관한 상담을 받거나 아이들의 사회적 경험의 장이되는 활동 실시
 - 지역 주민에 의한 아이들의 일시 보육이나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이벤트 등도 실시

③ 육아 응원 선언 발표

- 2012년 4월 1일, Nagicho 육아 응원 선언 발표
- 의회의 동의도 얻어서 선언한 내용으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켜진 약속은 돈을 쓴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냄.
- 마을 주민과 행정의 약속을 선언함으로써, 마을주민에게 **안심과 든든함**을!

○ 설명 및 질의내용

Q. 나기초 지역 만의 높은 합계특수 출산율의 비결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

A. 나기초 지역의 높은 합계 특수출산률의 키 포인트는 “**안심감**”이라고 생각한다. ① 지역민들이 살 곳이 있어서 안심(청년주택, 정주촉진주택, 저렴한 분양지 등), ② 일할 곳이 생겨서 안심(공업 단지나 기업 지원, 일거리 편의점, 공유 오피스 등), ③ 육아 부담이 덜어져서 안심(출생부터 대학졸업까지 끊임없는 경제적 지원), ④ 육아 고민이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어서 안심(Child home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관련된 구조), ⑤ 마을 전체가 육아를 응원해줘서 안심(일시 보육, 자주 보육, 등하교 지킴이, 학교지원봉사)등 이다. 지역 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각종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간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Q. 나기초의 목표가 있다면?

A. 나기초의 목표는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몇 년 뒤에는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이는 태어나는 인구 대비 사망하는 인구가 많은 것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다행히 나기초는 육아 지원책을 꾸준히 실천해 온 것이 출산율을 올려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계속적으로 인구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Q.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관련해 지원하는 시책도 있는지?

A. 문화 특성 상 자녀를 여러명 출산한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취업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육아에 전념하는 사례들이 많은 편이며, 경력 단절과 관련해 지원하는 시책은 없는 상황이다. 대신 긴급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보육을 지원한다던지, 마을이 함께 지원해주는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 나기초 지역만의 특색있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는 지?

A. 나기초 지역에는 에도시대부터 계승되어 온 무형민속문화재 요코센 가부키가 유명하다. 전통 문화를 계속적으로 전승하고자 하는 의미로 계승되어 왔으며, 매년 가을, 실제 나기초에서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이 연기에 참여한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한다.

√군정 발전과 접목할 부분 제안

○ 공동체 기반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 일본의 보육 정책 중 지자체가 주도하여 마을 어르신과 아이들을 연결(매칭)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세권(교통 요충지)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출퇴근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음.
- 현재 고성군에서도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별 근무 환경에 맞춘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인프라)가 부족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음.
- 고성군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어르신과 육아 가정을 연결하는 '세대 간 육아 나눔' 보육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출퇴근

동선을 고려한 거점형 보육시설을 설치해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는 등의 육아 지원 시책 등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임. 나아가 육아 상담, 일시 보육, 부모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육아 서비스의 꾸준한 제공이 필요함.

○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육아 지원체계 구축

- 일본 나기초 사례를 참고하여 출산에서 대학 졸업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육료, 교육비, 의료비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고성군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고성군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 정착 시 상환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예산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고성군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이 다시 우리 지역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 일본 나기초의 요코센 가부키 사례의 경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고성농요, 고성오광대 등 우리 지역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통문화 계승자 양성 및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전통문화 보존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또한, 고성군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과 애향심을 함양하는데 힘써야 함.



나기초 군청 청사 전경



나기초 군청 청사 입구



나기초 청사 내 부서 사무실



나기초 주요 시책 관련 프리젠테이션



나기초 주요 시책 관련 프리젠테이션



나기초 주요 시책 관련 프리젠테이션



나기초 군청 방문 사진



나기초 군청 방문 사진

2. 코라쿠엔

- 일본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 있는 정원. 총 면적은 133,000㎡
일본 내 3대 정원. 오카야마 시내를 흐르는 아사히 강변에 자리잡고 있으며, 강 건너편으로 오카야마성이 위치한 언덕 중턱에 조성되어 있어 성과 정원이 조화로운 경관을 이루고 있음.
- 1687년 오카야마 번주 이케다 쓰나마사에 의해 조성이 시작되어 14년에 걸쳐 완성된 코라쿠엔은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회유식 정원으로, 1952년 일본의 특별명승지로 지정됨. 정원 내에는 넓은 잔디밭, 전통적인 다실, 연못, 인공 언덕 등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음. 특히 봄철 벚꽃과 복숭아꽃, 여름의 연꽃, 가을의 단풍과 국화, 겨울의 매화 등 계절별 대표 식물들이 정원의 풍광을 더욱 아름답게 함.
- 코라쿠엔 정원 옆 도심지로 바로 이어지는 진출입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안내도 등을 곳곳에 잘 배치해 정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군정 발전과 접목할 부분 제안

- 고성군 관내에도 만화방초, 그레이스 정원 등 유명한 민간정원이 있으며, 이 밖에도 마암면 장산숲 등 아기자기한 명소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음.

관광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정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이 필요함. 또한, 고성군 내 명소와 연계한 투어 실시 등 관광 명소 활성화 정책의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하며, 단순 머무르는 방문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좀 더 관광객들의 체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필요함.



코라쿠엔 안내도



코라쿠엔 출입구



코라쿠엔 안내도



코라쿠엔 내 장식품



코라쿠엔 전경



코라쿠엔 전경



코라쿠엔 방문 사진



코라쿠엔 방문 사진

10. 30.(수)

1. 카케가와 시청

< 방문개요 >

- ▶ 일 시: 2024. 10. 30.(수) 13:00 ~
- ▶ 장 소: 카케가와 시청
- ▶ 참 석
 - 고성군의회: 방문단 14명(군의원 9, 수행직원 5)
 - 카케가와시: 카케가와시 기획정책과 平野(히라노) 외 직원 등
- ▶ 진행순서: 인사, 기관소개 및 현황 청취, 질의답변, 기념품 전달 등

■ 카케가와시 현황

- 인 구: 115,000명
- 면 적: 265.69km²
- 위 치: 시즈오카 남동쪽
- 주요산업: 녹차, 메론, 딸기, 토마토 농업
- 1979년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평생학습에 의한 마을 만들기’ 를 슬로건으로 함
- 독자적인 육아 교육 시책 추진

□ 카케가와시 평생학습·시민운동의 변천

- 1979년 전국 최초 평생 학습 도시 선언 이후 ‘협동’ 제창
- 1981년 카케가와 학사 모임 시작(지구 집회의 전신)
- 2005년 新카케가와시 탄생
 - 카케가와시, 다이토초, 오스카초의 합병
- 2007년 평생학습도시 선언(재)
 - 합병 후 신이치에서 평생학습 도시 선언
- 2009년 ‘협동’ 제창
 - 평생학습의 성과 위에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 협동
- 2013년 자치 기본 조례 시행
- 2015년 협동에 의한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
 - 협동은 다른 경험이나 입장 등이 공통의 목적을 향해 가는 것

- 1977년 신무라 준이치 시장이 부임한 이후, 1979년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시작으로 각종사업들을 추진해 현재에는 일본 평생학습도시의 일번지가 되었음. 카케가와시에서의 “마을 만들기”의 의미는 모두의 힘을 합쳐, 보다 생활하기 쉬운 곳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리를 실현하는 모든 활동을 내포하고 있음.
- “협동에 의한 마을 만들기”란 자치구, 시민활동단체, 기업, 개인, 시의회, 행정 등 카케가와 시에 관련된 모든 단체나 사람들이 보다 생활하기 쉽게 하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각각 할 수 있는 것들을 협력해 마을 만들기를 실시하는 것임.
- 협동이 요구되는 배경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에 의한 시민 요구의 다양화·고도화, 시민의 마을 만들기 참가 의식의 향상, 자립성이 높은 공공재정 운영 등 변화된 시대적, 사회적 상황들이 반영되었음.
- 카케가와시에서는 지역구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통해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력을 결집해 지역구의 과제 등 중요 사안을 토의하고 필요한 대처방안 등을 모색함.
지역구 내의 다양한 단체, 시민단체, 기업 등의 참가, 제휴 등을 촉진하고 각각의 강점을 이끌어내어 연결하는 것이 특징임.
- 모두 생각하고 모두 행동!
카케가와시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해, 협동으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모든 장소가 주민의 평생학습장)
- 카케가와시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차 생산지로 통하며, 마스코트 캐릭터(차노미야 킨지로)를 활용한 차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딸기와 메론 등도 지역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 설명 및 질의내용

Q. 우리가 사용하는 평생학습의 개념과 카케가와시의 평생학습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카케가와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A. 카케가와시에 있어서의 평생 학습이란, 개인의 배움을 마을 만들기에 연결해 나가려고 한다는 큰 특징이 있다. 그것은「평생 학습 도시 선언」의 「카케가와 시민은 서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질문하면서, 일평생 계속 배워 가자. 그리고 느긋하고 풍부한 평생 학습 사회를 구축해 나가자」에 집약되어 있다. 이것에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서로 문제·과제 의식을 공유하면서, 항상 지역사회나 시정에 참가해 행동하는 것, 즉 협동을 전제로 한 배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즉, 카케가와시의 평생 학습에 의한 마을 만들기는, 정보 공유에 의한 상호 이해나, 참가와 협동의 개념을 내포한 마을 만들기의 추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Q. 카케가와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성공한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A. 마을 조성의 테마와 과제를 명확하게 하고, 시민이 평생 학습을 통해 자기를 꾸준히 계발하고, 이 테마와 과제에 마을 조성의 담당자·주체로서 사회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카케가와시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필요한 이유와 효과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A. 카케가와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선언 이후 그 이념에 근거한 실천들이 지금까지 행해져 왔으며, 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살려 적극적으로 마을만들기에 참여해 현재에 도달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가려운 곳에 손이 닿는 대처)할 수 있게 되고, 같은 흥미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연결되게 만들어준다.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활동들은 만족도가 높은 마을 만들기로 이어지게 해준다.

Q. 카케가와시 자치 기본 조례, 카케가와시 협동에 의한 마을만들기 추진 조례 제정 추진배경 및 의의는?

A. 카케가와시에서는 시민과 행정의 적절한 역할 분담에 의한 지원 및 협동사회 실현을 위해 “자치 기본 조례”와 “협동에 의한 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제정 배경에는, 협동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조 만들기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자치 기본 조례에는 기존 조직을 살린 지역구 내 협력,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 체제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카케가와시 자치 기본 조례는 카케가와시에서의 마을 만들기의 최고 규범이 되는 조례로, 시민, 의회, 행정의 협동에 의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해 가기 위한 공통 규범이다.

제정 과정 또한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진행되었는데, 시민 위원회 2년 동안 30회 이상의 위원회와 20회 이상의 의견 교환 등을 거듭해 조례안을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행정에서 조례안을 작성해,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후 제정되었다.

Q. 청사의 첫 느낌이 사무실 전체가 외부에서 모두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각 층마다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이 곳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과 사용목적은 무엇인지?

A. 평생학습 테라스는, 시민의 만남의 장소나, 간단한 협의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있다. 시민과 직원, 시민과 시민, 직원과 직원, 3가지 미팅에 이용하고 있다.

Q. 신칸센 유치와 카케가와 성 및 누각 복원 등을 시민의 모금액으로 충당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오랜 시간 시민의 마을에 대한 관심과 시정 참여에 따른 결실이라 본다. 한국에서도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하는 곳이 많은데 선배로서 조언을 한다면?

A. 시민 모금이 많이 있었던 것은 보덕사상 추양의 정신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 또 시민이 마을 구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실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시민 자치의 “마을 만들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사람 만들기”가 중요하고, 평생 학습을 통한 사람 만들기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군정 발전과 접목할 부분 제안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강화

- 카케가와시의 “협동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례처럼 지자체, 시민단체, 개인 등 지역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기금 조성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 창출

- 카케가와시의 평생학습 모델은 개인의 배움을 마을만들기에 연계하여 주민 역량강화와 지역발전을 동시 추구하고 있음.
- 주민들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군정참여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함.

○ 주민 소통공간 확대 및 개방형 행정 구현

- 고성군의회 1층 로비에 조성된 ‘플라워가든’의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한 형태로 개방되어 있음. 고성군의회와 카케가와시의 사례처럼 고성군 공공시설물 내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테라스를 설치하여 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공공시설 신축 시 개방형 설계를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추진이 필요함.

○ 지역 특산물 활용 브랜드화 전략 수립

- 일본 카케가와시의 차 마스코트 캐릭터(차노미야 킨지로) 사례를 참조하여 고성군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친근한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함.



카케가와 시청 내 동상



카케가와 시청 내부



카케가와 시청 내부



카케가와 시 주요 시책 관련 간담회



카케가와 시 주요 시책 관련 간담회



카케가와 시 주요 시책 관련 간담회



카케가와시청 방문 기념 사진 촬영



카케가와시청 방문 기념 사진 촬영

10. 31.(목)

1. JA 동경 아구리파크 6차산업 농산물 직판장

< 방문 개요 >

- ▶ 일 시: 2024. 10. 31.(목) 12:30
- ▶ 장 소: JA 동경 아구리파크 6차산업 농산물 직판장
- ▶ 현 황
 - 시부야구 요요기에 위치한 농산물 직판장으로, 신주쿠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운영
 - 도쿄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직거래 시설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

- 도쿄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신선한 가공식품도 함께 제공하여 도시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음. 특히 JA 도쿄 그룹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농업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장으로,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이어지는 6차 산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줌.
- 각 지역의 특산물을 직접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6차 산업 지향 전시관으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하여 도시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동시에, 생산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는 상생 전략을 실현하고 있음.

√군정 발전과 접목할 부분 제안

- 도심 거점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
 - 협약 등을 활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 상설 직판장을 설치·운영하고, 생산자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간 유통단계를 축소. 농가 수익성 제고 및 소비자 가격 안정화 효과 창출
- 농어업인 단체와 연계한 판매 행사 운영 및 농식품 정보 제공 활성화
 -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인 단체 관련 행사 등과 연계해 농수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판매 행사 운영 필요.
 - 신선한 고성군 농특산물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및 신뢰도를 상승 효과 창출.

○ 지역 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고성군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특색있는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지역 특산물의 차별화된 브랜드화 전략으로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켜야 함.



JA동경 아구리파크 6차산업 농산물 직판장 전경



JA동경 아구리파크 6차산업 농산물 직판장 내부



직판장 내 홍보 전단지



JA동경 아구리파크 6차산업 농산물 직판장 방문



JA동경 아구리파크 6차산업 농산물 직판장 방문



JA동경 아구리파크 6차산업 농산물 직판장 방문 사진

※ 자료수집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나무위키 등

- 이번 국외연수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자체들의 선진 정책 사례와 평생학습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각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을 직접 듣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비록 일본이라는 한 국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다양한 주제의 현장을 최대한 방문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동거리만 1,100km에 달하는 강행군이었지만 지역별 선진 사례를 담당자들을 통해 직접 듣고 배우는 귀한 경험이었다.
- 구라시키 미관지구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기적의 마을'로 불리는 나기초, 그리고 평생학습의 중심지인 카케가와시 등 모두 인구 감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특단의 노력과 대책들이 인상적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했으며, 특히 현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주민들의 헌신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신뢰 및 효율적인 성과 창출 능력 등 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감명 깊은 사례로 각인되었다.
-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우리의 평생학습의 개념과 카케가와시의 평생학습 개념이 달랐던 부분이다. 일본의 평생학습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 즉 '지역(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평생학습과 비교해 문화적 요소와 지역적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었다.
우리 군도 평생학습을 연계한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자치회와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등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비슷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를 접근하는

방식에서의 일본과의 차이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 우리 군도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고유의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단순한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보다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면을 가미하는 것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체감한 연수였다.

- 물론 사회적 문화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시책을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필요한 부분에 접목한다면 지금보다 군민의 삶이 더 풍요로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아는만큼 보인다” 는 말처럼 이번 연수를 통해 직접 보고 배운 사례들이 고성군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관련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연수였다.

□ 이쌍자 의원

- 이번 공무국외출장 중, 나기초 마을 방문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고성군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 나기초 마을은 인구 6,000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장려정책, 육아 지원 정책이 매우 실효성 높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일본 평균 출산율 1.3명을 훨씬 넘어서는 2.95명 수준이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성과로써 우리 지역에 접목하면 좋을 정책들이 많다는 확인을 할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 일본 역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를 유지하려는 치열한 인구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정이 뛰어난 대도시와는 경쟁이 되지 않는 나기초와 같은 산골 마을이 눈에 띄게 성공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이 마을은 정부와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출산율과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있었으며, 그 정책들은 고성군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일자리 편의점

나기초에서 시행 중인 일자리 편의점 정책은 매우 독특하고 실용적이었다.

일자리 편의점은 주민들이 직접 의뢰받은 일을 지역사회 내에서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주로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 짧은 시간동안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2~3시간 또는 반나절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일들이다.

육아 중인 부모들이 직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이런 일자리를 마련해주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부모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원책이 될 수 있으며, 고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2. 나기 차일드 홈

또 다른 눈에 띄는 정책은 나기 차일드홈이다.

이곳은 마을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육아시설로써, 지역 주민들이 아이를 맡기고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육아 상담이나 또래 부모와의 교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하고 있었으며 마을 어르신들 자원봉사자로 참여시켜 육아 노하우를 전수받는등 육아관련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인상깊었다.

이 시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며, 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돌보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여유가 되는 부모들이 순번을 정해 아이들을 돌보며, 놀이와 활동을 지원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 깊었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들이 서로 협력하여 육아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아이를 맡길수 있는 돌봄학교나 고성에서 시행하는 공동육아나눔터보다 훨씬 유연한 방법이었다.

더구나 키즈카페가 없고 아이를 맡기기 마땅치 않은 고성군에서도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공공임대주택

나기초 마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기초는 젊은 부부들이 마을에 정착하고, 육아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센터빌리지 나기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이 지역으로의 이주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여, 마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센터빌리지 나기는 나기초에서 가장 많은 공급 가구 수를 자랑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5층 규모의 아파트 두 동과 총 60가구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이 주택은 나기초등학교와 나기중학교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육아 세대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월 임대료는 2만 2,000엔(약 22만원)에서 3만 엔(약 30만원)으로, 나기초의 다른 임대주택들 중에서 가장 저렴하여, 젊은 부부들이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나기초에서는 그린빌리지 나기라는 단독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하고 있다.

12가구 규모의 그린빌리지 나기는 최근에 지어진 주택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독주택 형태로 설계되었다.

월 임대료는 5만 엔(약 50만원)으로,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주택 앞에 작은 마당이 있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선호하고 있다.

- 이번 나기초 마을 방문을 통해, 고성군이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 나기초의 출산 장려 정책, 육아 지원 시스템,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은 고성군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 특히, 육아 친화적인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육아 지원 네트워크의 활성화, 그리고 주거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과 출산 장려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아울러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출산지원책을 재고하고, 우리 고성군에서는 선제적이고 파격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고성군에서도 나기초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일자리, 그리고 삶의 질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고성군의 출산율 향상과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